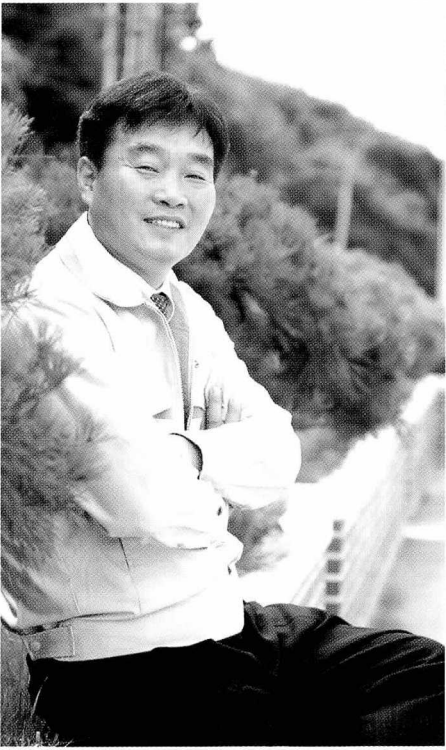


(주)타포

대표이사 김성준

기존의 획일화되어 있던 건설현장의 안전시설인 안전난간, 발코니 난간과 안전지역 표시판을 하나로 결합하여 시각적으로 부각시킨 색동파이프로 국내 건설현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안전지킴이 (주)타포의 김성준 대표이사를 만나 색동파이프와 우리나라의 안전보호구 및 시설물의 가야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선진국에서부터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처음 개발한 동기는 장시간의 현장 작업에서 압박하고 긴장을 느낄 때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각적으로 위험성을 알려 줄 수 있는 색동파이프를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색동파이프는 안전 확보와 위험성을 근로자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황색과 흑색의 반복배열로 기존의 회색 단관파이프에 안전표지판을 부착하여 위험성을 알리는 효과를 접목시킨 것과 같은 제품입니다.

색동파이프는 산업현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색동파이프는 기존의 도색 방식이 아닌 샬운 스파이럴 방식이라 하여 강관위에 칼라강관을 한 번 더 감싸는 방식으로 무엇보다 시인성이 뛰어나고 시공 방법도 기존 방법과 동일하여 설치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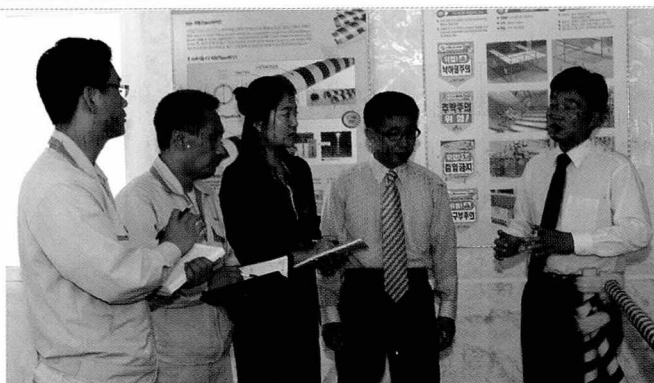
특히, 칼라강관은 열처리 가공을 한 아연 칼라강관이라 내구성이 강하며, 박리현상이나 변색이 없어 항상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건설현장에서도 장기간 동안 사용이 편리한 안전시설입니다.

산업현장 중 건설현장은 콘크리트 구조로 조명이 확보되지 않아 추락 등의 재래형 재해에 대해서도 색동파이프는 빛을 발산하는 야광 특성이 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위험지역을 쉽게 인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건설현장의 발코니 단부, 각종 안전난간, 방호울타리 등의 안전시설과 도로, 교통의 Safety Zone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등 그 활용도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색동파이프의 개발을 축하드립니다. (주)타포는 어떤기업이며, 색동파이프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타포는 지난 20년 동안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금번 개발한 색동파이프는 2년여에 걸친 연구 끝에 개발되어 금년 5월부터 출시되어 국내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안전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안전시설물들은 그동안 많이 변화되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획일화된 안전시설물이 있는데, 색동파이프는 그 틀을 깨고 산업현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가 큼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개인적으로 안전 쪽에서 일을 한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안전보호구나 시설물은 참으로 많이 발전을 해 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외국 안전관련 기기 전시회에서 외국 제품을 모방하거나 응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독창성이 떨어진 획일화된 제품이 우리나라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포의 색동파이프는 선진 외국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고, 기존의 틀을 깨고 우리 독자적인 기술과 디자인, 그리고 독자적인 브랜드로 탄생된 것인만큼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설 대기업에서도 받아드리는 반응이 긍정적이어서 건설안전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물을 취급하는 전문가로서 아직도 건설현장에서 재래형 재해가 발행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해는 어떤 형태로든, 어디에서나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타포가 추구하는 것도 재해를 미연에 예방하자는데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산업현장을 수없이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작업위주가 아닌 안전위주로 일을 한다면 우리와 같이 안전시설물을 취급하는 기업들은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보다 안전사고는 많이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안전시설물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기업


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업은 이윤도 중요하지만 단 한사람의 부상을 막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색동파이프가 세상에 선을 보인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색동파이프는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을 한단계 진보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더욱 홍보에 매진하여 산업현장에 폭넓게 보급할 것이며, 현재 48ø에서 최고 100ø까지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지지부분, 연결핀 등의 부속품을 개발 보완하여 명실공히 완벽한 색동파이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주)타포는 처음처럼 앞으로도, 단순히 파이프를 만드는 기업이 아닌 사람의 안전지키는 기업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최종덕 기자)

※ 본 코너 9월호에서 김은식 전무님의 직책을 상무이사로 잘못 표기된 사항을 정정합니다.